

“윤리 중 윤리”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자기 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아내를 독점하겠다는 이마저도 현대적이지 못한 이기주의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터에 기업을 독점하려는 재벌이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겠다는 독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윤리는 도덕과 다르다. 도덕은 시공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윤리 중 윤리라 할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낡은 세대의 가치 기준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들이 있다 해도 여전히 약속 있는 첫계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첫계명이란 으뜸 또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이다. 성경이 가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6계), 간음하지 말라(7계), 도둑질하지 말라(8계), 거짓 증거하지 말라(9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10계)는 모든 계명들 즉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는 것과 연결된 것이다.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가정이 무시되고 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일부일처제도와 가정의 기본단위가 제시된다. 부모나 자식 교육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비성경적이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문화 명령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자녀들은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악이라고 성경은 증언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되 주안에서 하라 하셨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하셨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그 순종은 굴종이나 맹종과 달리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순종이 의무라면 공경은 순종을 산출하는 덕성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으나 공경하는 마음은 같다. 공경은 무겁게 여기는 심정으로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받드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절대순종을 해야 하지만 부모에게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순종할 수 없다. 부모보다 예수님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범죄를 강요할 때 그 요구를 따를 수 없다. 자녀들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것은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존경받을 수 없는 자리에 부모가 있다 해도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 받을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 인해 낙심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랑과 격려를 하되 책망도 해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매를 야끼면 자식은 망한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나 회초리 옆에 사과를 놓으라 했다. 상도 주고 격려도 하는 것이 부모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양공급을 하듯이 인격을 키워줘야 한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익명의 어머니 같은 이들이 이 나라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 공경 받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10일 주일에 사망자대회가 시작됩니다. 자율기도 신청을 각 다락방장님들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날짜와 요일을 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일시에 기도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003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경기성 김예지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수부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봉(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전임목사 조동수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더 깊은 생각 더 성숙한 신앙 ”

■ **요 3:1-8**
사색의 계절인 가을은 마음의 양식을 더 풍성케 하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계절입니다. 정직한 자 기성찰과 신앙적 가치관에 부합한 판단을 위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고민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주님과와의 열린 관계를 가졌고 훗날 십자가 사건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의 점차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른 생각이 가져온 거룩한 모습과 성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바르게 생각하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 다?’(2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성전 청결사건을 유심히 지켜본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한 끝에 홀로 깊은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이성과 양심과 신념이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 세 가지의 밑바탕에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10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며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영적으로 생각하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5절) 그렇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 3장 14,15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의 기초가 예수님이며 모든 생각의 기준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판단 앞에 나를 처서 복종시키고 오직 그 뜻만 따르도록 결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3. 성숙하게 생각하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요 7:50) 성경 무대에서 사라진 그였지만 결코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책임 있는 태도인지를 깊이 생각했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장례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요 19:39) 이는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아낌없이 내 놓았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의 생각과 행보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처음 주님을 뵈었을 때는 거듭남에 대한 영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편에 서게 되고, 십자가를 목격한 후에는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공개하며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리와 양심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 중심의 영적인 생각을 하며, 책임 앞에 성실한 생각과 결단으로 자기 삶을 완성합니다. 이런 생각의 무르익음이 있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조원영 목사	박정선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84: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7(시 130)...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10(41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요 3: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더 깊은 생각 더 성숙한 신앙”...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84(53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17:1-2 인 도 자
 찬 송 338(364) 다 함 께
 기 도 오교식 집사
 성 경 행 5:33-4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이기고” ... 설 교 자
 * 찬 송 354(394)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 기 도 ... I부: 전광환 권사 II부: 석춘희 권사
 성 경 행 6: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시험을 극복하는 교회”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당회 / 10월 6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세례식 신청 마감 - 10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0월 17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10월 3일(주일)
- 세례 교육 : 10월 10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10월 10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고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일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03명	422명	1,925명	472명	2,226명

하나님의 저울

재어 보고 달아 보니 불합격이라는 선고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에게 떨어졌다. 한창 무르익고 있던 벨사살의 주홍이 깨져버리고 갑자기 공기가 굳어졌다. 난데없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람벽에 기어가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벽 위에 글자가 써졌기 때문도 아니었다. 글자 속에 담긴 내용이 날벼락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은 벨사살왕의 사람됨과 그의 소행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끄럽게도 근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벨사살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안 될 사람이 있겠는가.

은총으로 살고 있는 주체에 심사 기준에 합격자나 된 것처럼 오만해 하지 말고 감지덕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격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